<h1>나 혼자만 레벨업-47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r8e70df9222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7화</p>  
<p>제약이 크기 때문인가?</p>  
<p>아이템이 잘 나왔다.</p>  
<p>고작 기사 셋을 쓰러뜨린 게 다인데 두 놈이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아이템을 떨어트렸다.</p>  
<p>확률로 치면 66.6퍼센트.</p>  
<p>다른 곳에선 상상도 못할 만큼 놈은 드랍률이었다.</p>  
<p>인던을 수차례 클리어하는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는 잡동사니나 상점 판매용 아이템이 전부였으니 말이다.</p>  
<p>[아이템: 상급 기사의 흉갑]을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'당연히 획득해야지.'</p>  
<p>머리를 잃고 무릎 꿇은 상태로 움직임을 멈추었던 기사.</p>  
<p>놈의 흉갑이 스르르 사라지더니 어느새 발 앞에 나타났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이내 흉갑의 정보가 떠올랐다.</p>  
<p>[아이템: 상급 기사의 흉갑]</p>  
<p>입수 난이도: B</p>  
<p>종류: 방어구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 +7%</p>  
<p>(근력이 80 미만일 경우 움직임이 느려집니다.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 7퍼센트 증가!</p>  
<p>원래 가지고 있던 옵션과 합치면 무려 27퍼센트나 되는 물리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.</p>  
<p>'그럼 100퍼센트가 되면 물리 데미지는 아예 면역이 되는 건가?'</p>  
<p>잠시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B급 방어구로 얻는 옵션이 겨우 7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서 생각이 달라졌다.</p>  
<p>A급이라고 해도 막 30, 40퍼센트로 뛸 것 같진 않았다.</p>  
<p>그러니 100퍼센트를 다 모으는 건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?</p>  
<p>'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...'</p>  
<p>차근차근 더해 가다 보면 엄청난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은 확실해 보였다.</p>  
<p>템빨의 힘은 유진호를 통해서도 목격한 바가 있으니까.</p>  
<p>'이렇게 하면 되나?'</p>  
<p>진우는 흉갑을 들어 올렸다.</p>  
<p>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착용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떠올랐다.</p>  
<p>[아이템: 상급 기사의 흉갑]을 착용하시겠습니까?</p>  
<p>어떻게 봐도 입고 돌아다니기엔 상당히 부담스런 디자인이었다.</p>  
<p>'파수꾼의 목걸이'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번에도 역시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승낙했을 테지만...</p>  
<p>지금은 달랐다.</p>  
<p>'Yes.'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이템: 상급 기사의 흉갑'을 착용하였습니다.]</p>  
<p>흉갑이 자취를 감추었다.</p>  
<p>진우는 상태창을 불러와 스탯을 확인했다.</p>  
<p>[물리 데미지 감소: 27%]</p>  
<p>'물감은 올라갔고.'</p>  
<p>진우는 가슴 부근을 더듬어 보았다.</p>  
<p>어떤 느낌도 없었다.</p>  
<p>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봐도 마찬가지.</p>  
<p>아무런 이물감도 들지 않았다.</p>  
<p>파수꾼의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와 완전히 일치했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다음으로 진우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기사 하나에게 눈을 돌렸다.</p>  
<p>엉망으로 찌그러져 가져갈 게 없어 보이는 놈에게서 아이템 신호가 반짝이고 있었다.</p>  
<p>[아이템: 가죽 주머니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물론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지만 좀 너무 했다 싶었다.</p>  
<p>맨손으로 싸우려니 어디 힘 조절이 돼야 말이지.</p>  
<p>'...'</p>  
<p>엄숙한 표정으로 다가간 진우는 손을 뻗어 아이템을 가져왔다.</p>  
<p>'획득.'</p>  
<p>[아이템: 가죽 주머니]를 개봉했습니다.</p>  
<p>[3만 골드]가 들어 있었습니다.</p>  
<p>[3만 골드]를 획득했습니다.</p>  
<p>'허?'</p>  
<p>손에 들어오는 것도 없이 다짜고짜 골드를 얻었다는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기존 아이템과는 좀 다른 녀석인가?</p>  
<p>진우가 신기해하며 창고를 열었더니 정말로 소지금에 3만 골드가 더해져 있었다.</p>  
<p>[보유한 금액: 863,400 골드]</p>  
<p>'한번에 3만 골드나 주네?'</p>  
<p>기사들이라 가지고 다니는 게 많아서 그런가?</p>  
<p>그러고 보니 게임을 할 때도 다른 놈들보다 유독 인간형 몬스터한테서 많은 아이템을 얻었던 기억이 있었다.</p>  
<p>하긴 인간한테서 뺏는 게 짐승이나 벌레한테서 뺏는 것보다 적으면 말이 안 되긴 했다.</p>  
<p>그런 게 반영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.</p>  
<p>어쨌든 좋은 소식이었다.</p>  
<p>골드를 모아 몇 가지 아이템을 사고 싶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이 나와 준다면 생각보다 시기를 많이 앞당길 수 있을 듯했다.</p>  
<p>'다른 건 뭐 챙겨갈 건 없나?'</p>  
<p>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.</p>  
<p>진우는 여기 들어온 목적을 잠시 제쳐 두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.</p>  
<p>기사들의 갑옷은 방금 싸울 때 다 뭉개 버려서 가치가 없어 보이고...</p>  
<p>진우의 레이더에 기사들이 쓰던 검이 들어왔다.</p>  
<p>'저건 쓸 만하겠는데?'</p>  
<p>새것처럼 깨끗한 장검.</p>  
<p>단검이 아니라서 직접 사용하진 않겠지만 상점에 처분하거나 안 된다면 헌터들에게 팔 수도 있을 것 같았다.</p>  
<p>진우는 검을 주워들었다.</p>  
<p>그런데 들어 올리자마자 장검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녹슬기 시작하더니 곧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.</p>  
<p>"이런..."</p>  
<p>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.</p>  
<p>'허락된 물건이 아니라는 건가?'</p>  
<p>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손을 탁탁 털고는 아까 바닥에 내려놓았던 횃불을 다시 들었다.</p>  
<p>기사들이 나왔던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니 또 까마득하게 저편으로 이어진 통로를 볼 수 있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전투를 복습한다.</p>  
<p>우스운 이야기지만 진우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2시간가량 던전을 공략하면서 만난 몬스터는 모두 네 종류.</p>  
<p>기사, 마법사, 자객, 궁수였다.</p>  
<p>"이번엔 은신이냐?"</p>  
<p>갑자기 지척에서 사라진 자객.</p>  
<p>진우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감각을 확장시켰고, 곧 뒤쪽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기척을 간파했다.</p>  
<p>쉬익!</p>  
<p>진우는 자객이 휘두르는 단검을 '카사카의 독니'로 후려친 뒤, 밀려나면서 가드가 벌어진 놈의 빈틈 사이로 재빠르게 역습을 박아 넣었다.</p>  
<p>독니는 정확히 가슴 정중앙에 명중했다.</p>  
<p>푹!</p>  
<p>[자객을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치명상을 당한 자객은 비명도 없이 그대로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그 자리엔 자객이 입었던 가죽옷만 덩그러니 남았다.</p>  
<p>'왜 하필 전부 인간형 몬스터인지, 원.'</p>  
<p>놈들은 처치할 때마다 마치..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그나마 다행인 점은 녀석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.</p>  
<p>기사는 투구로, 자객과 궁수는 가죽옷에 달린 후드로, 마법사는 로브에 달린 모자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가던 길을 마저 가기 위해 돌아섰다.</p>  
<p>그런데 그때!</p>  
<p>번쩍- 하고 눈앞에 섬광이 터졌다.</p>  
<p>숨죽이며 주문을 외우고 있던 마법사가 섬광 마법을 완성시킨 것이다.</p>  
<p>퍼엉!</p>  
<p>귀를 찢는 폭음!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이미 마법사의 후방으로 이동한 뒤였다.</p>  
<p>"...!"</p>  
<p>마법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크게 놀라며 급히 주문을 외웠다.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틈을 놓치지 않고 단검을 사선으로 내리그었다.</p>  
<p>마법사도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진우는 주인 잃은 로브를 내려다보다가 단검을 창고에 넣었다.</p>  
<p>'방심하다가 비슷한 거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서 말이지.'</p>  
<p>실은 마나가 응집되는 기운을 느꼈을 때부터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.</p>  
<p>조규환의 섬광 마법.</p>  
<p>같은 공격에 다시 달할 정도로 진우는 어수룩하지 않았다.</p>  
<p>전투를 복습하는 것 같다는 건 그런 의미였다.</p>  
<p>'그것뿐만이 아니야.'</p>  
<p>몬스터들은 각 개체를 처치하는 데 필요한 스탯이 존재했다.</p>  
<p>기사는 근력, 자객은 감각, 궁수는 민첩, 마법사는 체력.</p>  
<p>해당 스탯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 상대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지는 구조였다.</p>  
<p>근력이 떨어지면 갑옷 안의 기사에게 타격을 줄 수 없고, 감각이 낮으면 자객을 잡는 데 애를 먹어야 하는 식이었다.</p>  
<p>'골고루 올린 스탯이 이럴 때 도움이 되네.'</p>  
<p>지능 스탯은 좀 낮은 편이지만 마나는 아껴 쓰면 되니까.</p>  
<p>[아이템: 가죽 주머니]를 개봉했습니다.</p>  
<p>[2만 골드], [미지근한 물이 담긴 수통]이 들어 있었습니다.</p>  
<p>[2만 골드], [미지근한 물이 담긴 수통]을 획득했습니다.</p>  
<p>진우는 획득과 동시에 창고로 들어간 수통을 꺼내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.</p>  
<p>"후-."</p>  
<p>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다.</p>  
<p>'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건지.'</p>  
<p>아니, 끝이 있기는 한 건가?</p>  
<p>진우는 비어 버린 수통을 바닥에 놓고서 양 옆구리를 짚었다.</p>  
<p>이제 던전에 들어온 지 3시간째.</p>  
<p>몸도 정신도 지쳐 가고 있었다.</p>  
<p>'...조금 쉴까?'</p>  
<p>진우는 동굴 벽에 기대앉았다.</p>  
<p>'상태창.'</p>  
<p>띠링.</p>  
<p>[피로도: 66]</p>  
<p>벌써 피로도가 위험 수치에 가까워진 상태였다.</p>  
<p>70 위로는 몸과 정신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.</p>  
<p>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서 피로도를 낮춰야 했다.</p>  
<p>진우는 머리를 벽에 기댔다.</p>  
<p>금방 졸음이 쏟아졌다.</p>  
<p>어찌나 피곤했는지 이런 환경에서도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잠들 수 있을듯 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쉭-!</p>  
<p>공기를 가르는 파열음!</p>  
<p>느려진 시간 속에서 진우는 날아오는 화살을 정확하게 잡아냈다.</p>  
<p>덥썩!</p>  
<p>이윽고 진우의 눈이 떠졌다.</p>  
<p>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궁수가 다음 화살을 장전하고 있었다.</p>  
<p>'아직 잠들긴 이르다는 거냐.'</p>  
<p>진우는 '카사카의 독니'를 소환하며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콰직!</p>  
<p>일격에 복부 흉갑이 흉측하게 구겨진 기사가 진우의 주먹과 벽 사이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.</p>  
<p>축 늘어진 놈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기사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상태 회복 효과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도 전투를 벌일 때마다 레벨은 꾸준히 올라갔다.</p>  
<p>점점 쌓여 가는 극심한 피로도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살짝 까진 주먹을 쳐다보며 끌끌 혀를 찼다.</p>  
<p>조금만 쉬면 회복할 수 있는데.</p>  
<p>이놈의 몬스터들은 잠시도 잘 틈을 주지 않았다.</p>  
<p>그래도 덕분에 건진 건 많았다.</p>  
<p>[착용한 아이템]</p>  
<p>파수꾼의 목걸이(A)</p>  
<p>상급 기사의 흉감(B)</p>  
<p>중극 자객의 신발(B)</p>  
<p>하급 궁수의 장갑(C)</p>  
<p>상급 마법사의 반지 (B)</p>  
<p>그 밖에도 쓸 만한 건 모두 창고에 넣어 두었다.</p>  
<p>'무기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.'</p>  
<p>안타깝게도 자객에게서 얻을 수 있는 단검들은 카사카의 독니와 공격력은 비슷한데 추가 효과가 없어 효율이 떨어졌다.</p>  
<p>이놈은 뭘 줄까?</p>  
<p>진우는 쓰러진 기사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이템: 상급 기사의 건틀릿]</p>  
<p>입수 난이도: B</p>  
<p>종류: 방어구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 +3%</p>  
<p>추가 효과: 손의 부상을 막아줍니다.</p>  
<p>(근력이 80 미만일 경우 움직임이 느려집니다.)</p>  
<p>'오.'</p>  
<p>진우는 화색을 띤 얼굴로 '상급 기사의 건틀릿'을 획득했다.</p>  
<p>그리고 즉시 장착했다.</p>  
<p>다른 아이템들처럼 장갑 또한 신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아무런 불편도 없었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던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통로의 저 너머.</p>  
<p>드디어 횃불이 끝나는 구간이 나타났다.</p>  
<p>끝은 거대한 성문으로 가로막혀 있었다.</p>  
<p>보스방에 문이 달려 있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.</p>  
<p>자연스럽게 얼마 전 발을 들였던 지하신전이 떠올랐다.</p>  
<p>그때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, 때문에 모두가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.</p>  
<p>하지만 지금은 달랐다.</p>  
<p>진우는 지금까지 온 길을 뒤돌아보았다.</p>  
<p>'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6시간...'</p>  
<p>레벨도 45가 되었고, 장비도 많이 갖췄다.</p>  
<p>준비는 되어 있었다.</p>  
<p>쉬어서 체력을 보충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, 그럴 때마다 어디서 귀신같이 알고 온 몬스터들이 수면을 방해했다.</p>  
<p>또다시 몬스터들을 불러들여 체력을 낭비할 순 없었다.</p>  
<p>[HP: 4511 / 8300]</p>  
<p>[MP: 660 / 790]</p>  
<p>[피로도 : 43]</p>  
<p>'이걸로 승부를 봐야 한다.'</p>  
<p>마지막으로 상태를 점검한 진우는 성문의 양쪽 문고리를 움켜쥐었다.</p>  
<p>그그그그그그-!</p>  
<p>육중한 몸은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밀렸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